

“잊지 않겠습니다”... 세번째 봄, 기억을 노래하다

광주·전남 곳곳 추모 문화행사

‘예술인 행동場’ 시낭송·플래시몹 공연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메이홀’ 영화제
시립미술관·은암미술관·담빛창고 추모전



은암미술관서 전시 중인 세월호 유가족 고영환씨의 작품



김화순 작 '한번만 안아볼 수 있다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아픔을 예술로 승화한 추모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3주기를 하루 앞둔 15일은 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려 시민들을 맞는다. 세월호 상처를 함께 나누는 각종 자리를 소개한다.

세월호 관련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예술인 행동場’이 15일 오후 3~6시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에서 열린다.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50여명이 참여해 ‘세째’, ‘춤추는 시민’, ‘피켓 플래시몹’을 진행한다. 또 장한권 서정교회 목사의 시낭송, ‘김석민-민족무예’, ‘김성기수 권준희’, ‘신희홍과 함께 커뮤니티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다. ‘304 내가 너를 기억할게’ 사진전, 거리미술전, 세월호 책·잡지 전시,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전시부스도 마련한다. 판매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과 추후엔 작가가 만든 기억팔찌를 판매한다.

같은날 오후 3시 무등산 인근 전통문화관은 ‘명인명장추모사업회’를 초청해 ‘혼의 소리, 생명의 춤’ 공연을 연다.

방자를 불러 부정과 원한을 풀어주며 극락으로 보내는 춤인 ‘지전춤’, ‘가야금산조 최옥산류’를 통해 유족을 위로한다. 또 ‘홍보가 중 박타는 대목’, ‘심청가 중 배는 고파~올라간다’ 대목과 ‘남도 살풀이춤’과 ‘소고춤’, ‘남도민요’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문의 062-232-1595.

전라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도 15일 오후 5시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에서 세월호 3주기 추모 ‘잊지 않겠습니다’를 공연한다.

1부에서는 국악실내악 ‘Fly to the sky’, 민중가요 ‘꽃분네야, 타는 목마름으로’, 희망의 북소리, 창극 ‘마당쇠 글 가르치는 대목’을 공연한다.

2부 세월호 3주기 추모공연 ‘기억’은 1장 고우(告由), 제2장 추모노래, 제3장 낯 건지기, 제4장 살풀이, 제5장 잊김굿, 제6장 잊김무(巫舞), 제7장 현화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다.

광산구립 이야기꽃도서관은 세월호 참사 의미를 되새기는 그림책 버스킹을 오는 15일 오후



전남도립국악단이 15일 남도소리올림터에서 세월호 3주기 추모공연을 연다. 사진은 씨김무 공연 모습.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2시 황룡강 친수공원 놀이터에서 개최한다.

‘0416 잊지 않겠습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를 주제로 진행하는 그림책 버스킹에서는 주민들과 선운초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낭독하고, 청강창극단의 민요, 강경원 씨의 통기타 공연, 참가자들의 즉석 플래시몹이 펼쳐진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순이와 어린동생’, ‘방귀쟁이 며느리’, ‘꽃이여 피어나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문의 062-960-6811.

매주 토요일 열리는 대인예술시장도 세월호 추모에 동참했다. 15일 오후 7시30분~10시30분 ‘잊지 않겠습니다’를 주제로 추모문화제를 연다.

전남대 사범대 부속중학교 학생들의 추모연주와 추모시 낭송을 시작으로 김현진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노래공연과 첼리스트 이대로의 첼로연주가 진행된다.

또 세월호시민상추모에 참여하고 있는 김희용 ‘남치는 교회’ 목사와 시민활동가 이유미씨, 전대사대부중 학생대표가 참여해 토크쇼를 연다. 그밖에 효광중 학생들은 첼로연주에 맞춰 수화공연을 보여주고 국악인 극근섬씨 등은 세

월호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스티로폼을 활용한 세월호 판화그리기 행사가 진행된다.

한편 갤러리는 ‘봄·마중’을 주제로 5월10일까지 전시를 연다. 김계진·염순영·오경민·고마음·조아란·김단비 작가가 꽃을 소재로 위로를 건넨다. 문의 062-233-1420.

시민자생단체 ‘메이홀’은 15일 오후 6시 ‘세월호 3주기 기억영화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다큐멘터리 ‘망각과 기억2: 돌아 봄’을 함께 보는 시간이다. 영화는 유니버스 구성으로 ‘잠수사’(감독 박종필), ‘세월호적(五賊)’(김환태), ‘기억의 손길’(문성준), ‘승선’(안창규), ‘오늘은, 여기까지’(박수현), ‘검을 멈추고’(김태일)가 담겨 있다.

추모전시도 다채롭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세월호 3주기 추모 홍성담 ‘세월호월’전이 5월 11일까지 열린다. 전국적 주목을 받은 ‘세월호월’ 원본과 대형 걸개그림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62-613-7114.

은암미술관은 ‘예술인 행동場’과 공동으로 ‘진실의 세월’을 22일까지 개최한다. 단원고 학생 고(故) 고우재군의 아버지 고영환씨가 만든 목각작품 3점이 출품된 점이 특징이다. 또 작

가 10명이 참여한 회화·조각·공예 작품과 세월호 관련 사진, 홍보물 등 아카이브 자료를 전시한다. 문의 062-231-5299.

광주여성재단은 6월30일까지 기획전 ‘다시 봄, 기억을 품다’를 개최한다. 광주 민중미술인 협회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5·18과 4·16을 동시에 추모하는 자리다. 임남진·김화순·정진영 등 여성작가 3명이 참여한 회화·조소 작품을 통해 아픔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담양 담빛창고에서도 기획 추모전 ‘노란 나비떼와 푸른 진실의 세월’을 5월15일까지 마련했다.

김재성·문학열·박일구·박정용·서법현·송필용·이재호·임의진·조정태·한희원·홍성담·홍성민 등 작가 12명이 참여한 회화·사진·조각·설치 등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송필용 작가의 ‘팬택항-검은 바다’, 한희원 작가의 ‘4월의 대화’와 동명의 시, 임의진 ‘메이홀’관장의 ‘저승사자 체이순신과 천국의 노랑나비떼’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홍성담 작가도 국경농단 세력을 짊어지는 작품을 출품했다. 문의 061-383-82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매혹적인 여성의 다양한 몸짓언어

갤러리 봄 19일까지 ‘류영도 초대전’

여체의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옮기고 있는 류영도 작가가 19일까지 갤러리 봄에서 ‘류영도 초대전’을 연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4년여 만에 광주에서 전시를 갖는 류작가는 100여 이상 대작 위주 10점을 선보인다.

여성의 다양한 몸짓언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누드를 포함해 여성의 관능적인 매력을 강조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품 ‘소녀의 꿈’은 흰색 원피스를 입은 흑인 소녀가 소재다. 푸른색 배경을 바탕으로 소녀가 보여주는 색채 대비는 순수한 매력을 강조시킨다. 또한 수줍은 듯 몸을 반쯤 돌리고 관람객을 쳐다보는 소녀를 통해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류 작가는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배경에 넣은 점이 특징

이다. ‘소녀의 꿈’에는 아프리카 배경을 연상시키는 얼룩말을 넣었다. 작품 ‘초원’도 얼룩말과 코끼리를 배경에 넣고 가슴을 반쯤 드러낸 흑인 여성을 등장시켜 아프리카 토속미를 표현했다.

‘여인의 꿈’은 여체의 아름다운 곡선과 추상적인 배경을 접목시켰다. 몸을 반쯤 굽힌 여성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시선은 뒤를 향하고 있다.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들에게 부담감을 덜어주는 한편, 여백의 미를 통해 시각적 편안함을 선사한다.

류씨는 전남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광주문화예술상 특별상, 한국구상대전 우수 작가상, 대동미술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개인전 32회를 열었고 류아트센터 대표, 한국현대미술작가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문의 010-9078-18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여인의 꿈’

‘아름다운 예술시장’

15일 유·스퀘어문화관

유·스퀘어문화관이 15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유·스퀘어 2층에서 ‘아름다운 예술시장’을 개장한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작가들이 직접 만든 비누·옷·팔찌·인테리어 소품과 예술품들을 판매하고 소규모 공방 체험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장에는 매회 지역작가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누구나 셀러로 참여해 작품을 판매하거나, One Day 작업 공방을 열어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다. 또 공연을 원하는 밴드는 예술시장이 열리는 날 무대에 설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홈페이지(www.usquareculture.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메일(sekmax27@naver.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빛고을, 미디어아트를 켜다

특집

– 세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어떤 빛깔일까?
– 생생한 즐거움,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가다
– 빛의 도시 밝히는 광주의 미디어아티스트들

기획
영·호남합동원정등반대원 동계훈련 동행 르포
일본 야츠카다게 산군 오르며
등반의 의미 묻다

기행
소문난 예술교육현장을 찾아서(서)
세계 제일의 인상주의 컬렉션
미적 체험과 창작 이끄는
파리 오르세미술관

노중환의 꿈의 여행(서)
우뚝한 고대문명의 불가사의
이집트

여행이 만난 이 사람
코카콜라 애장품 기증 코카콜라 탄생시킨 컬렉터 김용은
‘포수 동반 10홀런’ 기록 가진 KIA 인방마님 이흥규

예향 초대석

복서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테너 조용갑

“꿈꾸는 이에게 날개 달아주고 싶어요”

대한민국 식물명인(서)
시간과 정성으로 숙성시킨
360년 증가의 손맛
전통 진장 명인 기순도

남도 시간 속을 걷다(서)
1930년생 무인 간이역
보성 명봉역

백성들의 대중문화 X파일(서)
대중문화상의 역할과 문제는?
흔들리는 수상의 공정성, 진정한 평가의 가치 훼손

문화 회개
창립 25주년, 동인지 발간한
‘시와산문’ 동인

트렌드 따라잡기(서)
키덜트들의 레고홀릭
브릭의 세계를 아는가?

아트 뉴스 & 리뷰
오승운의 ‘꽃과 동수전’
오랑정색에 담은 한국의 정신

장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재향과 선택(서)
도스토옙스키 & 차이콥스키

가이싱 트레킹스 프로젝트(서)
해양관광 수산도시의 상징,
여수 곡동항

함평
함평천지 너른 등,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움